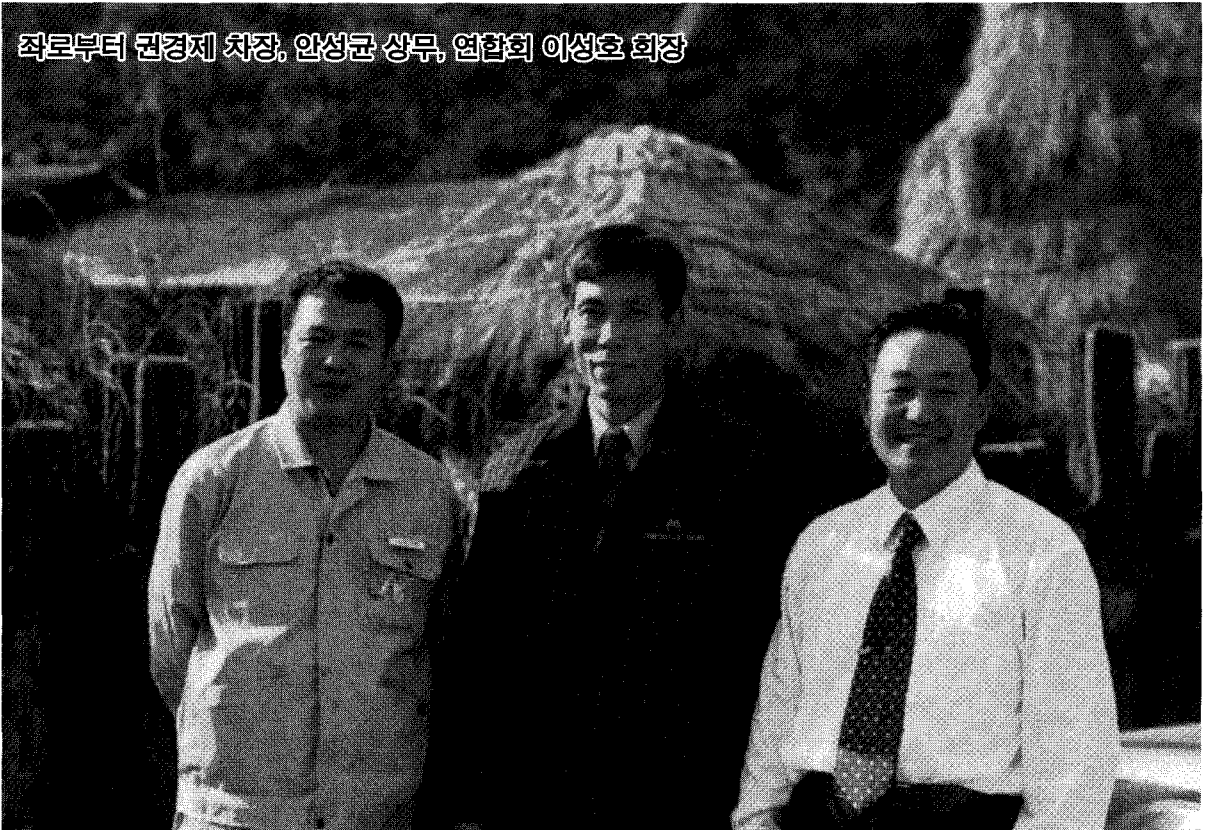


# 환경은 회사의 일부입니다.

하이젤(주) 환경관리부 권경제 차장

**늦**은 가을 11월 언저리에 환경관리인이라는 사명감 하나로 하이젤(주)의 환경관리를 앞장선상에 올려놓은 환경관리부 권경제 차장을 만났다. 그리 크지 않은 회사 규모이지만 환경설비 만큼은 어느 기업 못지않은 정력적인 생산회사 하이젤(주). 그곳에서 안성균 상무와 그를 만나 환경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좌로부터 권경제 차장, 안성균 상무, 연합회 이성호 회장



완벽한 폐수처리를 지향하고 환경친화적인 업체로 거듭나기까지 그 뒤에는 환경보전을 위해 묵묵하게 내 일처럼 5년째 환경관리를 해오고 있는 권 차장이 있었다.

"중소업체로서는 드물게 환경부문 10억여원의 투자를 통해 현 최고의 설비를 갖추고 완벽한 환경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사장님 이하 경영진의 마인드가 환경친화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환경은 회사의 일부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설비부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권회설 사장님과 안성균 상무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를 인터뷰하기까지 기자는 많이 힘이 들었다.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인터뷰를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환경관리인 모두 열악한 환경관리 현장에서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데 부담된다는 것이다. 그냥 사명감으로 책임을 가지고 일할 뿐이라는 예기다.

하이젤이 이렇게 선진화된 기술과 설비를 갖춘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직종의 특성상 고분자 폐수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초기에는 환경관리를 위한 기술도 없고 정보가 부족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그러한 가운데 생산부에 근무하던 권 차장이 환경관리부로 이동, 노후화된 설비를 전면 대체하고 선진 기술을 도입해 기업 이미지를 크게 높였다.

하이젤은 1986년 일본 Nitta Gelatin社dhk 기술제휴로 Gelatin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생산량의 8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주로 의약품, 식첨용 젤라틴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의 뼈나 가죽으로부터 얻는 천연고분자 단백질로 요즘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마이구미, 젤리포 등 젤리 식품 원료에서부터 의약품, 시진필름용,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사용처가 다양하다.

동물의 뼈나 우피와 같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들어지는 까닭에 환경오염방지에 꼭 필요한 국가적으로 권

장하여야 할 사업이기도 하다.

하이젤은 지금까지 환경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 방류수 15%의 재활용에서 2002년까지는 50% 이상을, 2004년까지는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해 재활용율을 크게 높일 계획으로 장기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생산부에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부로 자리를 옮겨 지금의 환경인이 되었다.

"생산품의 특성상 고분자 폐수의 배출로 초창기 환경관리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누구든 쉽게 맡으려고 하지 않아서니까요. 저가 맡으면서 대대적인 시설교체에 들어갔으며, 환경관리의 선진화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오투자와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회설 사장님과 안성균 상무님의 추진력과 결단력이 지금의 환경관리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환경관리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문인 경영자들의 환경마인드로 그가 힘들어해 본 적은 없어 행복했다고 술회한다.

어려움을 하나 하나 극복해가면서 만들어진 환경관리를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권 차장은 초기 환경관리를 위해 많은 투자를 감행했으면서도 환경법규 앞에서는 늘 조마조마했다고.

지금의 폐수처리는 기존방식과는 다

른 사내방식으로 공정의 간편화·안정화, 약품비 절감 등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동력은 무려 250~300HP의 절전을 가져와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그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과 환경관리인의 노력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과 결과 앞에서 보람을 느꼈다.

환경관리 초창기 밤새워 기준치를 잡아가고 만들어진 환경관리가 이제는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이 되었다.

아직도 기술과 정보공유가 어렵고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정책으로 숨이 가쁘긴 하다. 규제강화속 단속·처벌

**중소업체로서는 드물게 환경부문 10억여원의 투자를 통해 현 최고의 설비를 갖추고 완벽한 환경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사장님 이하 경영진의 마인드가 환경친화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환경은 회사의 일부입니다.**

만이 아니라 기술지도가 절실하다고 하는 그는 기술이 규제를 앞지를 수 없는 현실이 고민이다.

그는 늘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하고 준비한다. 그래서 저비용으로 완벽하게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과 획기적인 약품개발을 해보고 싶다.

관리인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러한 꿈과 같은 이야기를 현실화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자원과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는 관리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지적한다. 실력과 능력을 겸비할 때 관리인들의 권위와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아직은 국내 기업주의 환경의식이 미약하지만 점점 환경 없이는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환경관리인들이 기업의 환경을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 대내외적인 환경기업으로 성장해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를 몸으로 부딪쳐 일궈온 만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그는 보여주고 있었다.

"환경은 경쟁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회사 환경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의 산, 우리의 강이 지켜집니다. 잠시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인들은 특히 책임과 사명감으로 넓게 환경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이 쉽다고 하는 그는 환경관리에 있어서 만큼은 철저하고 냉철하다.

안성근 상무는 그런 그를 "과묵하고 말이 없지만 환경관리에 있어서 만큼은 책임감과 자존심이 강하다"라고 말한다. 회사를 위한 노력의 공로로 사내 모범상을 받기도 한 그는 같은 부서직원들에 대한 사랑 또한 남다르다. 가족처럼 챙기고 인정해주고 싶단다. 그만큼 소외 받고



힘든 일이기 때문이라는데.

처음 대면했을 때 거의 말을 하지 않던 그는 필자의 환경관련 질문에서만만큼은 애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었다. 회보가 좀더 많은 회원들의 현장소식을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그의 바람을 뒤로 그의 환경관리자세를 정리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환경보전에 대한 열정과 경영자들의 환경마인드에 감사했고, 고집스럽게 지켜가는 환경사랑이 자랑스러웠다. ◀